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 조선족 중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염 영 아

2015년 8월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 조선족 중학생을 중심으로-

염 영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통제력, 인터넷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소재한 조선족 중학교 6 곳의 2, 3학년 학생 7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들을 제외한 후, 최종 6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결과분석을 위하여 SPSS/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빈도분석, Cronbach's α , T-검증, ANOVA, Pearson's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13.3%를 차지하였다.

성별, 학업성적에 따라 인터넷중독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 따라 인터넷중독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중독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인터넷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애정은 인터넷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거부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높아지고 애정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낮아진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부적상관관계를, 애정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거부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고 애정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면에서 바람직한 부모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가설	5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인터넷중독	7
2. 부모양육태도	15
3. 자기통제력	21
4. 선행연구 고찰	26
III. 연구방법	32
1. 연구대상	32
2. 연구절차	32
3. 연구도구	33
4. 자료의 분석	36
IV. 연구결과 및 해석	37
1.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실태	37
2.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45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	49
V. 논의	51

VI.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7
<Abstract>	66
부록목차	68

표 목 차

표 II-1. Ivan K. Goldberg의 인터넷중독 장애 진단준거	11
표 III-1. 연구대상자별 학년 성별 구성원인원 수와 비율	32
표 III-2. 인터넷중독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34
표 III-3. 부의 양육태도 3개 하위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35
표 III-4. 모의 양육태도 3개 하위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35
표 IV-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8
표 IV-2.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실태	40
표 IV-3 부모관련 요인의 특성	42
표 IV-4. 연구대상 청소년 인터넷중독 유형별 분포	43
표 IV-5.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43
표 IV-6. 학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44
표 IV-7. 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45
표 IV-8. 인터넷중독,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상관관계	45
표 IV-9. 인터넷중독 하위요인과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자기통제력 상관관계	48
표 IV-10.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49
표 IV-11. 부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50
표 IV-12. 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50

그림 목차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18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전 세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편리하고 빠르게 받아들이며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의 접근성이 더 유리해지고 편리해져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서 발표한 <제35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2015)>에 따르면 2014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6.49억 명이며 보급률이 47.9%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10~30대는 인터넷 사용자비율이 가장 높아 78.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인터넷 이용자가 30.6%, 중학생 인터넷 이용자가 36.8%로, 이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학습에의 활용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오락, 게임, 이메일, 채팅, 쇼핑, 블로그나 카페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최혜진, 2010). 이처럼 청소년들의 생활에 인터넷은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 과다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공격성, 폭력성, 성적 충동성의 자극, 가족 및 친구관계의 악화, 고립감 및 우울감 유발, 자아 정체성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크다(김현주, 2011). 그 중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이 중독성이다.

‘인터넷중독’은 이제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는 Goldberg에 의해 1996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Young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Young(1999)은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 초조감과 같은 정서적 금단현상과 내성으로 인해 더욱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다르게 접

축을 아예 끊고는 살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인터넷중독이 현대사회에 주는 문제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김연화, 정연숙, 2005).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빠져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정수연, 2014).

중국 청소년 인터넷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 중국청소년인터넷중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 네티즌가운데서 인터넷중독비율은 26%에 달하였고 12%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말까지 중국 청소년 인터넷중독자수는 약 4천만 명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가속시키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인터넷중독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민민, 201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고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 시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정수연, 2014). 중국 연변지역은 한 부모 가정, 부모부재가정이 많고(김명숙, 2013; 손춘옥, 2011)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김단, 2012) 청소년들이 충분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공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모두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재미와 쾌락을 제공해주는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놀이의 장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운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통제력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나리, 2014; 정수연, 2014; 최혜진, 2010).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의 정도가 높고(정병일, 박희서, 2014; 정수연, 2014; 홍진선, 2009),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정도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재경, 2010). 그리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송원영, 1998; 최혜진, 2010; 한경아, 2003)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변인간의 관계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의 향상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원, 2011).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양육에 있어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청소년시기는 자아정체감 형성기로서(Erickson, 1968),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가장 밀접한 요인이다.

인터넷중독과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의 원인을 사랑의 결핍,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고,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보고 하였다. 정진태(2003), 유정민(201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한상현(2004)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학생이 부정적으로 지각한 학생보다 인터넷중독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은옥(2006)은 인터넷중독수준을 감소시키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이며 합리적인 양육방식이라 설명하였으며 박정은(2008)은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수준을 낮추는데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부모가 수용-자율적인 양육태도일수록, 부모-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수록, 인터넷중독의 감소를 보인 반면(황승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김병년 외, 2013), 거부적(황승일, 2013)일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일생이 좌우되기도 하며, 자녀의 성격 형성과 성격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양육태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남명자,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 간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의 중요한 환경변인이며,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과도적인 시기이며 성장호르몬으로 인해 남녀의 신체적 변화도 일어나며 남·여의 차이가 현격하게 생기는 시점이므로(정수연, 2014),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금창민, 2013; 천은주, 2013). 대부분의 성별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리, 2007; 김나리, 2014; 김현복, 2011; 민민, 2015; 박은정, 2008; 정수연, 2014). 특히, 남학생의 중독률이 높은 이유는 ‘기계’로서의 컴퓨터는 남학생에게 보다 익숙하다는 것(이계원, 2001)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 성향이 높은 게임이나 오락을 더 많이 즐기고 있다는 것(문은숙, 2006)으로 들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중독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성별의 차이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중독에 관해서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여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컴퓨터 게임과 관련한 중독에 포함되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나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인터넷 이용 실태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요균아, 2012). 특히 중국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등 요인들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조선족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교육과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근거중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문제의 효과적인 예방과 부모교육, 치료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인터넷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가설

가설 1. 인터넷중독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즉 지나치게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가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고위험자에 해당하는 95점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23점, 금단 16점, 내성 15점 중 한 가지라도 초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스웨덴에서 제작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대부분의 부모양육태도 측정은 부모를 한 변수로 보아 측정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다.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self-control)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오늘날과 같은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는 일은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를 송원영(1998)이 자기보고형으로 수정 제작하여 21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중독

가. 인터넷중독의 개념

인터넷의 의미는 모든 온라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위에 ‘전자 지구촌(Global Electronic Village)’이라는 개념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터넷이란 공간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각자의 사용목적은 달라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은 분명히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사용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최초로 인터넷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언급한 Goldberg(1996)는 나중에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다. Young(1996)은 DSM-IV의 ‘병적도박’의 진단기준을 준거로 하여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사고와 의존현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 인터넷을 사용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만 만족이 생기는 내성현상,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감소가 동반되는 심리적 장애를 인터넷중독으로 정의하였으며, Griffiths(1999)는 중독은 약물중독이외에도 도박, TV 및 컴퓨터게임, 운동, 성행위 등의 행동중독이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중독은 행동중독에 포함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2013년에 개정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 편람(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는 추후 연구가 고려되어야할 사항(Conditions for

Further Study)으로 분류하여 인터넷 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편의 학자들은 인터넷중독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지나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 보았다(Suler,1996). 그들은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 보다는 ‘과도한 컴퓨터의 사용’(송명준 외, 2000), ‘인터넷 과다사용’(김민정, 2010; 박성길, 김창대, 2003) 이라는 용어로 현상을 표현하고 있고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적응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박성길, 김창대, 2003; 홍경희, 2002).

Davis(2001)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인터넷중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매, 주식거래, 도박, 온라인게임, 사이버섹스 등과 같은 특정기능에 의존하는 인터넷중독을 병리적 인터넷 이용하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인터넷상에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을 일반 병리적 인터넷이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으로 구분하였다. Block(2007)의 진단조건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을 과도한 게임(excessive gaming), 성적 몰입(sexual preoccupations), 이메일/문자메시지 사용(e-mail/text messaging) 등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 이 모든 유형은 다음의 네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즉 인터넷중독은 1)과도한 사용(excessive use) 2)금단 증상(withdrawal) 3)내성(tolerance) 4)부정적인 부수효과(negative repercussions), 즉 싸움, 거짓말, 성적 불량, 사회적 고립, 피로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며,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지칭하는 말로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인터넷 의존(internet dependence), 인터넷 관련 질환(internet-related disorders), 인터넷 남용(internet abuse), 웹바홀리즘(webaholism), 가상중독(virtual addiction),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기술적 중독(technological addiction),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 등으로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없는 실정이지만(Byun et al. 2009) 인터넷중독자가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김정은, 2008).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중독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즉

지나치게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인터넷중독의 증상

Goldberg(1996)와 Young(1996a)의 인터넷중독 진단기준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넷중독의 증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재인용).

1) 내성과 금단

내성이란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도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한다. 정부통신부가 정의한 내성 증상에는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사용으로 보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며,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 힘들며,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하게 되는 증상 등이 있다(박경호 외, 200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할 때 의도보다 오래 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내성증상을 보였다(안정임, 김동규, 2000).

금단 증상은 모든 중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는 증상이다. 인터넷중독에서의 금단 증상은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에 시달리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기다리던 이메일이 와있거나,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신나는 전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인터넷을 끊기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경호 외, 2001).

2)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인터넷중독이 되었을 때,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본인과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일상생활의 기능장애이다. Young(1999)은 지나친 인터넷 의존의 결과 학생들이 성적 부진이라든지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나 해고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소년은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해지고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현저해진다. 가

족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인터넷 사용에 제지를 받으면 몹시 화를 내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박경호 외, 2001).

송명준 외(2000)와 김교현(2001)의 연구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 시간조차도 앗아가게 된다. 인터넷 사용으로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수면부족 등으로 만성피로감을 느끼고, 눈의 피로, 시력저하 등이 온다. 두통, 목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실조, 혹은 운동부족과 과식으로 인한 체중증가가 생긴다. 또한,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돈을 훔치거나 가상의 공간에서 사기나 절도 행위를 하기도 한다.

3)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관계를 맺고자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Young (1999a)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현실관계보다 가상현실관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고비나 감정적 어려움을 인터넷으로만 극복하려하는 성향을 우려하였다. 문성원과 김성식(2004)은 인터넷중독 중 하나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서 오프라인에서 아예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행동과 관련지어 대인관계의 손상이라 명명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중독은 몇 가지 증상에 의해서 단정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일종의 중독 장애로 전달될 만큼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 활동상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인터넷중독의 진단 기준

현재까지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공식적 진단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며,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유사개념인 물질 중독과

병적도박의 진단 기준을 원용해서 진단에 사용하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중독 장애라는 용어와 개념적인 준거를 만들었던 사람은 뉴욕 정신과 의사전문의 Ivan K. Goldberg이다. 그가 제시한 인터넷중독 장애(IAD)진단 기준은 [표Ⅱ-1]과 같다.

[표 Ⅱ-1] Ivan K. Goldberg의 인터넷중독 장애 진단준거

12개월 동안에 7개 항목 중에서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며, 인터넷 사용에서 비순응적인 행동 유형을 보여 임상적으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인터넷중독으로 판단된다.

1. 내성

- 1)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2)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2. 금단

1) 특징적 금단 증상

- (1) 장기간의 심한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 (2) 항목(1) 이후 수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 중 두 항목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①정신운동초조(Psychomotor agitation)
- ②불안(anxiety)
- ③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강박적 사고
- ④인터넷에 대한 환상이나 꿈
- ⑤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자발적 비자발적 운동

- (3) 항목(2)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상의 중요한 영역에 장애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2) 금단 증상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 혹은 유사한 통신망을 사용하는 행동

- 3.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길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 4.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나 혹은 그 시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5. 상당량의 시간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행동에 소비하는 경우
 - 6.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여가활동이 인터넷 사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감소한 경우
 - 7.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인터넷 사용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되는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

인터넷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의 시작은 1996년 임상심리학자 Kimberly S. Young에 의해서다. 그는 DSM-IV의 "병적 도박"진단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 감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무시 등을 중독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인터넷중독 검사도구에서 의존, 내성, 금단, 신체적 문제, 학업적·직업적 문제, 가족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측정하여 판단하려 하였다. Griffiths(1997)는 집착,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내성, 금단,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는 일상생활의 장애, 현실 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등이다.

중국에서 대만학자 陳淑惠(2008)가 DSM-IV의 기준에 근거하여 다년간의 임상고찰을 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한 인터넷중독진단표준(中文網絡過度使用量表, 1999)은 5가지 측면에서 인터넷중독을 분류한다. 첫째, 강박적 인터넷 접속행위, 즉 인터넷 사용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것 둘째, 인터넷 금단형상, 즉 인터넷 사용하지 않을 때 심리상태 셋째, 참을성, 즉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내수성 넷째, 시간관리 문제, 즉 인터넷 사용의 스케줄 다섯째, 대인관계 및 건강문제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김청택 외, 2002)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는 한국 국내의 상황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인터넷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 행동, 내성의 7개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일상생활 장애는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현실구분 장애는 인터넷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상현실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 기대는 인터넷을 할 때 심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헛된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실상의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금단 증상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은 것 같은 허전함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인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며 비교적 지지를 덜 받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점점 더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이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째, 일탈 행동은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일곱째, 내성은 연구에 따르면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음란물이나 악성 댓글을 달고 계속 그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고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는 다는 것이다(김세영, 2005; 김청택 외, 2002).

이처럼 인터넷중독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진단 기준이 나와 있지만 일관되게 사용되는 진단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척도들 중에서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총 40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정체감의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아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다(민민, 2015). 이런 시기에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권태감이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조민자, 2011)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할거리 등을 제공해주으로써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엄옥연, 2011). 그러나 지나친 인터넷사용과 몰입은 인터넷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며 청소년의 학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새로운 이용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화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할수 있다(오승근, 이시형, 2000).

한국에서는 <2013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상별 인터넷중독위험군은 유·아동 6.4%, 청소년 11.7%, 성인 5.9%로 청소년 인터넷중독위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 중 10대 11.7%, 다음으로는 20대 9.5%, 유·아동 6.4%, 30대 5.6%, 50대 3.8%, 40대 3.4%순으로 10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비율은 남성이 12.8%로 여성(1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 청소년 통계>의 결과를 따르면, 2013년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4.1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는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10대 95.8%, 20대 99.3%로 거의 모든 청소년(10~20대)들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2013년 청소년온라인행위보고서>에서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이 12~24세 사이에 가장 많았으며(88.4%) 그 중에서도 중학생비율(38.3%)이 가장 높았다. <2011년 중국청소년인터넷중독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비율이 26%에 도달하였고 인터넷중독경향비율이 12%로 높게 나타났다(중국 청소년 인터넷 협회, 2011). 그중에서 13~17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이용 용도는 주로 게임, 뉴스검색, 음악 듣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에서 남성의 중독 비율은 17.07%이고 여성의 중독 비율은 10.04%로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보다시피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10대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고 인터넷이 청소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서현, 2014).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새롭게 탐색해 나가며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 나가게 되는 시기이다(조민자, 2011). 또한 청소년기는 변화와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역동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김영경, 2013). 하여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 가족의 해체, 가족 간의 대화의 부족 및 부정적인 패턴으로 이어지는 부모와의 대화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행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권재원, 2007), 그 어떤 시기보다도 청소년기는 중독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조민자, 2011).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원인에 대해 Suler(1996)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청소년이 현실에서 보다 손쉽게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사이버공간이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기 좋고,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분리되려는 욕구가 사이버공간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소속감이 이를 충족시켜 주는 공간이 되어 준다는 것이외에 현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김형수, 조우홍, 2009; 성미향, 2014). 중국 인민대학교 법률사회학연구소 소장인 周孝正은 사회학적인 각도로부터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원인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사랑의 결핍이다. 중국의 가정은 대부분 독신자녀가정이고 부모들은 맞벌이부부로서 청소년들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생활에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을 달래고 온라인상의 생활에 빠져들기 쉽다. 둘째는 입시중심 교육체제하에서의 흥미 교육의 부족이다. 과도한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흥미생활이나 취미활동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면서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인 인터넷중독에 쉽게 빠지게 된다. 셋째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관리의 부족이다. 인터넷게임에 대한 법률 법규가 아직 완성화 되지 못하여 사회위해성이 큰 일부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도 유력한 조치와 제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 게임을 계속 접촉할 수 있게 되어 필연적으로 ‘전자해로인’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中國未成年人網綜合, 2014).

중국 청소년 네트워크협회 비서장 郝向宏은 “인터넷중독자 95%가 13-18세의 청소년들”이고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살인사건이나 포르노 중독자들의 성범죄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수년전부터 인터넷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중국은 선진국처럼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시간이 없었고 “오락 거리가 별로 없는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요균아, 2012).

이처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문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친구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모와 형제 및 친구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이소영, 장재홍, 2004). 또한 인터넷중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비행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격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고 사전에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며, 그들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식을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문은숙, 2006). 부모의 양육태도는 17세기까지만 해도 훈육과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 후 다양한 양육태도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Freud에 의해 초기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화 작업이 시작되었고(권수정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규정하였고 Hurlocke(1978)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김수연, 201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종승(1982)은 양육태도를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혹은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라고 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명숙(1998)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덧붙여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떤 일정한 정서적 강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용이성 및 내적 행동 등도 양육태도로 개념화하였다. 남상인(1983), 이동희(1995)는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 및 행동이라 정의 하였다(이지원, 2011 재인용).

중국 학자들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동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陈陈(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여러가지 양육행위의 특징적 개괄이고 일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위방식이라고 해석하였다. 王志梅(2003)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위성향이라고 하였다. 吴新华(2006)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질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행위방식 및 이런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부모의 인격특질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대만의 저명한 심리학자 张春兴(201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정의하며 그 표현방식은 문화의 부동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王海花, 2013 재인용)

이처럼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깊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계속 연구하여 왔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경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는 방향은 두 가지의 가정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 정도이다. 조순애(2003)는 지각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행동할 당시에 일어난 특수사건에 대한 의미적 결과이며 그때의 상황이나 사실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양육태도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다는 자녀가 그들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경순(1991)은 부모평가보다는 아동이 지각하여 판단된 부모 특성에 대한 보고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조은숙, 2015,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부모가 보고한 양육태도가 아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아동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문은숙, 2006).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Symonds(1949)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과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런 2개 차원을 다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보호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복종은 맹종형과 익애형으로,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Symonds의 이론은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비해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로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기적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2개의 축, 즉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1]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Schaefer, 1959에서 인용)

Schaefer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런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잘한다. 또한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

둘째, 애정적-통제적인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태도로서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범주를 결정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부모에 의해 극복된다고 믿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

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의존적이고 정서가 불안하고 사교성, 창의성이 떨어지고 인내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적대적-자율적 태도는 방임형의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내버려두는 태도이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거리감, 무관심, 냉담함, 태만한 태도를 보이므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흔히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정한 정서와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인다.

넷째, 적대적-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 체벌 또는 심리적 징벌을 하는 것으로서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부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불안정하여,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하거나 복종을 강요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신질환자가 많으며 수줍어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성향으로 이끌게 된다. Schaefer는 이 중에서 애정적이며 동시에 자율을 허용하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Baumrind(1991)는 부모역할의 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성격적 증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아동의 유형과 부모의 양육방법 사이의 관련유형을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권위적 양육으로 나누었다. 권위주의적 양육형태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요구하며 강압적인 체재를 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복종은 이들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는 자녀가 복종하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허용적 양육형태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된다고 믿고 그들의 자율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규칙이나 규율은 거의 없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수용하는 편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대체로 미숙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양육형태란 가장 바람직한 양육형태로 간주되며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일정범위 내에서만 행동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권위가 있으면서 애정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면서 또한 독립적이다(우현주, 2002).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이론을 근거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Schaefer의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개 차원, 그리고 정원식의 한 요인인 성취-비성취, Ho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모형 중에서 합리-비합리 차원을 첨가하여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을 거의 포함시킨 것이다.

중국에서 부모양육태도, 방식에 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崔金花(1991)는 거부형, 엄격형, 익애형, 기대형, 모순형과 의견 불일치형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陶沙 외(1994)는 부모양육태도를 과보호, 무시, 엄격한 통제, 민주, 처벌, 성취요구, 교육의 불일치 등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林磊(1995)는 극단형, 엄격형, 과보호형, 성취형, 적극형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顾海根등(1997)은 민주주의식, 행위요구, 민감성, 상벌관과 감정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성격,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지원, 2011).

최근에는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된다고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우영숙, 2008)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제작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 EMBU’의 단축형으로, 이 척도에서는 애정형·거부형·과보호형 등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

청소년 시기는 가족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족의 지지, 가족관계, 가족기능, 부모의 지지, 부모의 간섭 및 강요, 부모의 감독 및 통제, 게임에 대한 부모의 태도, 격려와 금지, 부모 자녀간의 신뢰감 등 청소년에게 부모의 영향은 크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표경자, 2014).

부모가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자녀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낮고, 문제시되는 행동을 하게 될 염려가 낮다. 하지만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자녀는 정서적인 불안정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문제시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때 자녀는 갈등해소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을 하거나 비행행동을 하기도 하는데(박경일 외, 2004; 이세경 외, 2011; 이혜진 외, 2013), 그 행동중 하나가 청소년 인터넷에 빠지게 되고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와 친밀감은 부모로부터 채우지 못한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동기로, 관계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권석만, 2009). 즉 사람들이 인터넷중독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오원옥, 2007; 장재홍, 2003).

부모의 무관심, 무시와 같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적대감, 공격성과 같은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피하고자 인터넷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희, 2012; 김기숙, 2009; Davis, 2001; Kwon, Chung & Lee, 2011).

3. 자기통제력

가.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self-control)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오늘날과 같은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는 일은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교육

심리학용어사전, 2000).

자기통제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Kanfer와 Goldfoot(1966)은 커다란 보상을 얻기 위해 혐오적인 자극을 견뎌내는 것으로, Goldfreid와 Merbaum(1973)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자기 강화와 같은)을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Mischel(1974)는 ‘반복적인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을 정의하였다. Kopp(1982)는 자기통제력을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Karoly(1999)는 자기통제력을 스스로 상황의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김정숙, 2014 재인용).

자기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Bandura(1982)의 상호작용적 결정주의 이론에 근거한다. Bandura는 인간행동은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자기평가반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목표 설정, 평가적 비교, 자기승인, 자기비판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하여 환경적 단서를 변화 및 매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Logue(1995)는 자기통제력을 선택의 상황에서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을 충동성으로 보고 충동성을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기통제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장기적 만족보다는 즉각적 만족을 선택하느냐 즉각적 만족보다는 장기적 만족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김나리, 2014 재인용).

Grasmick 등 (1993)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요소에서 자기통제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6가지 성격특성들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충동성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같은 충동적 행위가 장기적인 손실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동을 삼가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동적 행동을 한다. 두 번째 요인은

단순과제에 대한 선호로, 낮은 통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행동의 과정에서 부지런함, 끈기 혹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복잡한 일을 싫어하고 쉽고 단순한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모험 추구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흥분되고 위험한 또한 긴장감이 있는 행동을 선호한다. 네 번째 요인은 신체적 활동의 선호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모험과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인지적 혹은 정서적 활동을 싫어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자기중심성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욕구에 무감각한 성향을 말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화내는 기질로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갈등을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좌절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다. 이로부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감각하고 행동적이고 위험한 모험을 선호하며 순간적이고 단순한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창순, 2004).

여러 연구자들이 정의한 자기통제력의 개념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외부의 감독이나 지시 없이 사회적, 상황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을 인내하는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발달

자기통제력 발달의 일반적 원리는 Aronfreed(1976)가 제시한 사회학습 이론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통제된 행동은 본래 외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다가 점차적으로 내적 통제나 자기 통제가 되는데, 내재화된 통제를 야기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다는 것이다(손정순, 2007).

자기통제력 발달에 관한 일반적 원리는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요인을 시사한다(Aronfreed,1976). 첫째는 아동은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성인, 부모 등의 양육자와 따뜻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기꺼이 성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른다. 둘째는 아동의 인지적 요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자기 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행동의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는 벌과 보상 같은 학습으로 원리들이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

다(손미경, 2007).

Logue(1995)는 연령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발달을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더욱 선호하는 결과를 위해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단계로 6세 정도가 된 어린이들은 이 단계에 도달 할 수 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9~12세에 습득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언제 더 선호하는 결과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운다. 동시에 더 선호하는 결과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언제나 유익한 것만은 아님도 배운다(최혜진, 2010, 재인용).

이상과 같이 자기통제력은 장기적 만족을 위해 즉각적 만족을 주는 행위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에 자기통제력의 형성에 실패하면 낮은 학업성취, 비행행동 및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특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부모로부터의 안정적인 독립이나 성숙한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ogue, 1995).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력의 발달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부모에 의해 가정 속에서 확립되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자기통제력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떻게 자기 통제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개발과 획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청소년시기의 자기통제력 발달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중독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Loss of control)을 의미한다(최혜진 외, 2011). 이전의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약물 사용 이외의 중독적 행동에 대한 기저에는 다른 중독 장애와 공통적으로 통제력의

결핍을 보고하였고, 이후 정상적인 적응이나 자기 조절과정에서의 실패에 의한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교현,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통제력은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미, 2014).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병적인 도박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는 통제의 실패는 음주로 인해 직업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알코올 중독이나 빚을 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적인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충동조절 장애라고 하였다.

이소영(2000)도 인터넷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충동조절장애라고 주장하였다. 충동조절장애의 필수증상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엄옥연, 2011 재인용)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적절한 노력을 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를 가상공간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성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많이 겪게 되며 문제행동에 가담하게 되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장래의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므로 인터넷중독성향으로 빠지기 쉽고, 즉각적인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심란희, 2004).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일반적인 자기통제력의 저하는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중독적인 경향을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중독적인 사용을 이미 보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그 사용량이나 정도를 제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인터넷 공간의 특정한 통제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이추진, 2008).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선행연구 고찰

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

Young(1998)은 'Caught in the Net'에서 가족 내에서 사이버 중독증 환자로 진단되는 대다수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지만, 진짜 문제는 가족 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고립감을 느낀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억압된 감정과 감추어져 있는 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냉담한 가정과 사회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게 돼서 인터넷중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상배,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정-거부적 부모양육태도유형을 연구한 학자들(고은옥, 2006; 김정애, 2006; 문은숙, 2006; 박화자, 2001; 우영숙, 2008; 전필선, 2009; 정숙영, 2009; 정은경, 2008)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이 낮았고, 거부적일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았음을 지적했다. 김선희(2013)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천은주(2014)는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배(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애정변인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 게임중독은 낮아진다. 또한 장원재(2003), 장은희(2008)의 연구에서는 자율-통제적 부모양육태도 유형에서 과도한 자율적 유형은 인터넷중독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며 적절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윤지영(2001)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적대감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 등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인터넷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장원재(200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절, 규제가 엄격할수록 인터넷중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정은경(2008)은 부모의 거부와 과보호

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은 높다고 하였다. 이지원(2011)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혹은 과보호로 지각하는 것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은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영록(2013)도 부모의 거부, 과보호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강하게 할수록 인터넷에 더 중독되고(김기숙, 2009; 박희서, 2010), 부모의 과잉보호가 심한 경우(우영숙, 2008; 주석진, 2011)가 인터넷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거부와 과잉보호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에 빠지도록 하는 양육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와 모를 분리하여 분석한 논문들의 경우, 부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일 때,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일 때 인터넷중독이 낮다고 하였다(강석수, 2007; 문은숙, 2006).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필선(2009), 노선미(2010)의 연구에서도 부의 애정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낮고, 부의 거부 및 과보호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모의 경우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중국 선행연구에서도 王芳(2008)는 상하이(上海)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요인의 연구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보다 권위적, 방임적, 익애적,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경향이 높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한 청소년보다 불일치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이 더 높았으며, 李英存 등(2012)은 어머니의 엄한 처벌이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경자(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덕환(2008)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환경특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아름(2009)의 연구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비추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

인터넷중독 장애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이후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고,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 송원영(1998)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낮은 자기통제력이 큰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고, 이시형 외(2000)은 낮은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종원, 조옥귀(2002)의 인터넷·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사회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태도, 또래집단태도, 교사태도,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만이 인터넷 게임중독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석(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지적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수준변화를 알아본 박선희, 전경자(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공격성, 자기통제력, 비행행위, 음주경험, 흡연경험, 성적 등과 같은 변인들 가운데 낮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성향을 예측하는 가장 강한 변수였다. 김나리(2014)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선경(2001)은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고 중독적 사용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김남숙(2002)은 인터넷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 최혜진(2010)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함을 밝혔고 이지원(2011)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민자(2011)는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정적인 관계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터넷중독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중국의 何燦 외(2012), 聶衍剛 외(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성향은 낮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성향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병일, 박희서, 2014; 정수연, 2014; 한정선, 김세영, 2005; Robert, Carolyn & Matthew, 2003). 결국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조절을 통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에서 자기조절을 못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

인터넷중독과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김택호, 2013; 백지은, 2009; 정태근, 2005)과 청소년(김세영, 2005), 최근에는 대학생과 장년, 노년층(김효정 외, 2007; 심옥녀, 2008)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중독 연구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중요성 또한 전 연령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을 잘 예측하는 변수로 볼 수 있고 인터넷중독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은 높아지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관련 연구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을 비행 및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면서,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가정환경 및 자녀양육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주 생활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은 자아형성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외부 환경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무엇보다 가장 오랜 시간 직접적인 상호작용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의 형성에 중요하다(김병년, 최홍일, 2013).

자기통제력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련 연구들을 보면 자기통제력은 생의 초기 정

서발달이 시작하면서 초기 형성이 시작되고 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인생 초기단계에 성립된 자기통제력의 개인차는 그 이후 생의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동은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거나 확고히 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 자기조절을 한다(손미경,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보고해왔다(기광도, 2006; 연현진 외 2011; 이기영 외 2001; 조한익, 2011; Olsen, Bates and Bayles, 1990). 이기영 외(2001)는 부모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높아진다고 보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민주주의적일수록 자녀가 충동성을 스스로 통제하여 자신의 환경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병년, 최홍일, 2013).

우영숙(2008)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하위유형 중 애정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하였고 조은숙(2015)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고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 ‘합리-비합리’요인은 자기통제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합리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높아진다.

조한익(2011)의 초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 간에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과보호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떨어뜨리며, 반대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각기 다른 수준을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비추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자기통제력이 높고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중학교 중, 연길시 3개 중학교, 룡정시 2개 중학교, 왕청현 1개 중학교 포함 6개 중학교의 2, 3학년 남녀 학생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 작성방법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담임교사 도움아래 검사 및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712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잘못 기입된 자료를 제외한 총 640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별 학년 성별 구성원인원 수와 비율 (%)

구분	학년		전체	
	2학년	3학년		
성별	남자	120	159	279(43.6)
	여자	170	191	361(56.4)
계	290(45.3)	350(54.7)	640(100)	

2. 연구절차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지 구성

은 인터넷중독, 자기통제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각 학교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질문지의 기재방법을 설명한 후 배부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712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54부와 결측으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18부를 제외한 총 64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인터넷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연구팀은 인터넷중독을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얻어야 만족(내성)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해(금단)생활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본 척도는 게임, 채팅 등 인터넷사용 전반에 대하여 40문항,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1요인)는 9문항, 현실 구분 장애(2요인)는 3문항, 긍정적 기대(3요인)는 6문항, 금단(4요인)은 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5요인)은 5문항, 일탈행동(6요인)은 6문항, 내성(7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의 각 문항은 4단계의 척도를 사용하여 항상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3점), 때때로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중독 점수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160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중·고등학생용)는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총점이 108점 이상이거나 1요인이 26점 이상이고 4요인이 18점 이상이고 7요인이 17점 이상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95~107점 사이거나 1요인이 23점 이상이고 4요인이 16점 이상이고 7요인이 15점 이상이라면 아직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중독의 위험이 있는 사용자인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앞의 두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은 모두 현재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사용자군 등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지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척도의 신뢰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체 검사도구 신뢰도는 .91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영역별 Cronbach α 계수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 요인은 .76, 현실 구분 장애 요인은 .60, 긍정적 기대요인은 .85, 금단요인은 .79,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은 .75, 일탈행동요인은 .70, 내성요인은 .70로 나와 각 측정도구의 각 하위영역도 양호한 신뢰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인터넷중독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일상생활장애(1요인)	9	1,2,3,4,5,6,9,8,9	.76
현실구분장애(2요인)	3	10,11,12	.60
긍정적기대(3요인)	6	13,14,15,16,17,18	.85
금단(4요인)	6	19,20,21,22,23,24	.79
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5요인)	5	25,26,27,28,29	.75
일탈행동(6요인)	6	30,31,32,33,34,35	.70
내성(7요인)	5	36,37,38,39,40	.70
전체	40		.91

나. 부모양육태도척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척도는 스웨덴에서 제작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척도(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EMBU-short로 My memories of upbringing의 뜻)로 측정 하였다. 총 23개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거부(rejection), 애정(emotional warmth), 과보호(over protection)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거부문항 7개, 애정문항 8개, 과보호문항 8개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을 보면 거부에 해당되는 문항은 ‘부모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고 벌 하셨다’,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좋아하셨다’ 등이 있고, 애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부모님은 내가 최고가 되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주셨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따듯함을 느꼈다’ 등이며 과보호에 해당되는 문항은 ‘부모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였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도 나는 못하게 하셨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거부와 과보호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본 척도의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았다고 지각하며, 거부와 과보호를 받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나누어 따로 측정하게 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의 양육태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3, 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3개 하위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표 III-3, 표 III-4와 같다.

표 III-3 부의 양육태도 3개 하위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거부	1,4,7,13,15,16,21	7	.77
애정	2,6,9,12,14,17,19,23	8	.86
과보호	3,5,8,10,11,18,20,22	8	.70

※ 역문항(총 15문항) - 거부, 과보호하위요인 전 문항

표 III-4 모의 양육태도 3개 하위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거부	1,4,7,13,15,16,21	7	.76
애정	2,6,9,12,14,17,19,23	8	.88
과보호	3,5,8,10,11,18,20,22	8	.74

※ 역문항(총 15문항) - 거부, 과보호하위요인 전 문항

다. 자기통제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를 송원영(1998)이 자기보고형으로 수정 제작하여 21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역점수 문항은 5,6,7,8,9,10,11,15,19번 문항이며 이 문항들의 Cronbach α 계수는 .87로 보고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신뢰도는 유은영(201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8로 김영은(20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애매모호한 응답을 피하고 응답이 분산돼있는 것을 더 집중시키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원래의 5단계 Likert 척도를 4단계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6으로 큰 문제가 없는 수치임이 확인되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및 각 하위요인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청소년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실태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연변주내 중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640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640명중 여학생이 361명(56.4%), 남학생이 279명(43.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년 분포를 보면 중학교 2학년 290명(45.3%), 3학년 350명(54.7%)로 3학년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4세가 234명(36.6%), 15세가 263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14.2세였다. 학업성적은 중상이라고 여기는 학생이 168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상으로 여기는 학생이 157명(24.5%), 하로 여기는 학생이 117명(18.2%), 중으로 여기는 학생이 104명(16.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하라고 여기는 학생이 94명(14.7%)으로 가장 적었다. 경제수준은 매우 잘 사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18명(2.8%),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9명(15.5%),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74명(74.1%),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3명(6.7%), 매우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명(0.9%)으로 대부분 경우 자신의 생활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640)

변수	구분	명(%)
성별	남	279(43.6)
	여	361(56.4)
학년	2학년	290(45.3)
	3학년	350(54.7)
나이	13	54(8.4)
	14	234(36.6)
	15	263(41.1)
	16	83(13.0)
	17	6(0.9)
학업성적	상(1-8등)	157(24.5)
	중상(9-18)	168(26.3)
	중 (19-24등)	104(16.3)
	중하(25-32등)	94(14.7)
	하(33등이하)	117(18.2)
경제수준	상(매우 잘 사는 편이다)	18(2.8)
	상중(잘 사는 편이다)	99(15.5)
	중(보통이다)	474(74.1)
	중하(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43(6.7)
	하(매우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6(0.9)

2)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는 94.4%가 집이라고 했으며 기타의 장소, 학교, pc방,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설치장소는 본인의 방이 254명

(39.7%)으로 가장 높았고 거실, 부모님의 방, 기타장소, 형제 자매 방, 없음으로 나타났다. 평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전혀 사용 안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7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1명(25.2%),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6명(19.7%), 2시간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4명(8.4%),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2.0%), 4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명(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말에는 2~3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9명(23.3%)로 가장 많았고 1시간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9명(21.7%), 4시간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8명(21.6%),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0명(20.3%), 1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2명(8.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2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영역 세 가지를 물어보고 그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처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영화, 음악, 동영상 등 즐기(23.6%)를 가장 많이 하고 2순위로는 게임(20.5%), 그 다음으로는 정보검색(17.5%), 채팅(10.6%), 다운로드(10.4%)등 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가 인터넷중독에 빠졌을 때 어디에서(누구한테서) 도움을 받을것인지 두가지를 고르게 하고 그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처리를 실시한 결과 도움을 요청할 대상으로 부모님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20.9%) 학교선생님(20.6%), 인터넷중독 전문센터(14.4%)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

(N=640)

변수	구분	명(%)
인터넷 접속장소	집	604(94.4)
	학교	6(0.9)
	PC방	5(0.8)
	학원	2(0.3)
	기타	23(3.6)
컴퓨터 설치장소	부모님 방	94(14.7)
	본인 방	254(39.7)
	형제 자매 방	16(2.5)
	거실	204(31.9)
	기타장소	54(8.4)
인터넷 사용시간 (평일)	없음	18(2.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77(43.3)
	1시간 미만	161(25.2)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126(19.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4(8.4)
인터넷 사용시간 (주말)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13(2.0)
	4시간 이상	9(1.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2(5.0)
	1시간 미만	52(8.1)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139(21.7)
인터넷 사용영역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49(23.3)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130(20.3)
	4시간 이상	138(21.6)
	개인홈피(미니홈피, 블로그 등)	105(5.5)
	이메일/ 카드	45(2.4)
	정보검색	334(17.5)
	게임	391(20.5)
	온라인쇼핑	68(3.6)
	동호회나 커뮤니티	14(0.7)
	채팅	202(10.6)
	메신저	46(2.4)
	(mp3,영화사진)다운로드	199(10.4)
	아바타 치장	4(0.2)
	영화, 음악, 동영상 등 즐기기	451(23.6)
	성인 혹은 도박 사이트	3(0.2)
기타	47(2.5)	
	합계	1909(100)
친한 친구가 인터넷중독에 빠졌을 때 도움 요청	부모님	440(34.6)
	학교선생님	262(20.6)
	친구들	266(20.9)
	학교상담선생님	88(6.9)
	인터넷중독 전문센터	183(14.4)
	기타	34(2.7)
	합계	1273(100)

3) 부모 관련 요인의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부모관련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3 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216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모름이 144명(22.5%), 4년제 대학졸업이 124명(19.4%), 중학교 졸업이 104명(16.3%), 2년제 대학졸업이 23명(3.6%), 대학원 이상이 20명(1.2%),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명(1.4%)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213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모름이 152명(22.5%), 중학교 졸업이 120명(18.8%), 4년제 대학졸업이 111명(17.3%), 2년제 대학졸업이 24명(3.8%), 대학원 이상이 14명(2.2%),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명(0.9%)이었다.

부모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어머니만 이용하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474명(74.1%)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이용하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99명(15.5%), 모두 이용 안 하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43명(6.7%), 두 분 이용하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18명(2.8%)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인터넷이용 확율이 아버지보다 훨씬 높게 학생들에게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0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통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2명(37.8%)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 매우 통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5명(10.2%), 권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4명(5.3%), 매우 권장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1.4%)로 나타났다.

표 IV-3 부모 관련 요인의 특성

(N=640)

변수	구분	명(%)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9(1.4)
	중학교 졸업	104(16.3)
	고등학교 졸업	216(33.8)
	2년제 대학 졸업	23(3.6)
	4년제 대학 졸업	124(19.4)
	대학원 이상	20(3.1)
	모름	144(22.5)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120(18.8)
	고등학교 졸업	213(33.3)
	2년제 대학 졸업	24(3.8)
	4년제 대학 졸업	111(17.3)
	대학원 이상	14(2.2)
	모름	152(23.8)
부모 인터넷 이용상황	두분 모두 이용하신다	18(2.8)
	아버지만 이용하신다	99(15.5)
	어머니만 이용하신다	474(74.1)
	모두 이용 안 하신다	43(6.7)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매우 통제한다	65(10.2)
	통제하는 편이다	242(37.8)
	보통이다	290(45.3)
	권장하는 편이다	34(5.3)
	매우 권장한다	9(1.4)
	합계	640(100)

나. 연구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실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전체 연구대상자들을 고위험군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IV-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86.7%)이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3.3%인 85명이 인터넷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고위험 사용자군(11명)중 남학생(1.4%)이 여학생(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74명)중 남학생(7.3%)이 여학생(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중독 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연구대상 청소년 인터넷중독 유형별 분포 (N=640)

집단 구분	성별		전체인원(%)
	남(%)	여(%)	
고위험 사용자군	9(1.4)	2(0.3)	11(1.7)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7(7.3)	27(4.2)	74(11.6)
일반 사용자군	223(34.8)	332(51.9)	555(86.7)
합계	279(43.6)	361(56.4)	640(100.0)

다. 성별, 학년별, 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N=640)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인터넷중독	남	279	70.30	16.106	7.355***
	여	361	61.80	12.117	

*** p<.001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중독 평균점수가 70.30으로, 여학생 평균 점수 61.8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355$, $p<.001$). 즉, 인터넷중독경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학년별에 따른 인터넷중독 차이

학년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N=640)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인터넷 중독	2학년	290	64.66	14.253	-1.329
	3학년	350	66.20	14.879	

학년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2학년의 경우 인터넷중독 평균 점수는 64.66으로, 3학년의 경우 인터넷중독 평균 점수는 66.20으로 두 집단 간에는 비록 1.54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성적별에 따른 인터넷중독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에 나타난바와 같다. 표 IV-7에서와 같이 인터넷중독 수준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156$, $p<.001$). 상위권인 학생들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평균 점수가 61.5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위권이 64.40, 중상위권이 65.04, 하위권이 66.63, 중하위권이 70.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하위권이 인터넷중독에 대한 평균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중독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하위권과 중하위권은 모두 상위권 집단에 비해 인터넷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성적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

(N=640)

변수	성적	N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인터넷 중독	상 a	157	61.55	12.980	7.156***	
	중상 b	168	65.04	14.053		
	중 c	104	64.40	12.657		
	중하 d	94	70.19	15.827		d>a
	하 e	117	66.63	16.507		e>a

***p<.001

2.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먼저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인터넷중독,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총점에 따른 상관을 구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는 거부요인과 과보호요인을 역채점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인터넷중독과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8와 같다.

표 IV-8 인터넷중독,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상관관계(r)

	인터넷중독	부 양육태도	모 양육태도
부 양육태도	-.229***	-	
모 양육태도	-.195***	.391***	-
자기통제력	-.365***	.264***	.234***

***p<.001

인터넷중독과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부 양육태도(r=-.229, p<.001)와 모 양육태도(r=-.195, p<.001)는 인터넷중독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중독과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부적상관($r=-.365, p<.001$)을 보이고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또한 중학교 인터넷중독에는 자기통제력이 부모양육태도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통제력과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부 양육태도($r=.264, p<.001$)와 모 양육태도($r=.234, p<.001$)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중독 하위요인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9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인터넷중독의 하위요인 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의 거부요인은 인터넷중독 각 하위요인 일상생활 장애요인($r=.214, p<.001$), 현실구분 장애요인($r=.243, p<.001$), 긍정적 기대요인($r=.157, p<.001$), 금단요인($r=.245, p<.001$),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r=.194, p<.001$), 일탈행동요인($r=.181, p<.001$), 내성요인($r=.149,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모의 거부요인은 인터넷중독 각 하위요인 일상생활 장애요인($r=.194, p<.001$), 현실구분 장애요인($r=.116, p<.01$), 긍정적 기대요인($r=.148, p<.001$), 금단요인($r=.182, p<.001$),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r=.200, p<.001$), 일탈행동요인($r=.131, p<.01$), 내성요인($r=.110,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와 모의 거부요인은 인터넷중독의 각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그중 부의 거부요인은 금단과, 모의 거부요인은 일탈행동과 가장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애정요인은 인터넷중독 각 하위요인 일상생활 장애요인($r=-.169, p<.001$), 현실구분 장애요인($r=-.182, p<.001$), 긍정적 기대요인($r=-.142, p<.001$), 금단요인($r=-.178, p<.001$), 일탈행동요인($r=-.16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과 내성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애정요인은 인터넷중독 각 하위요인 일상생활 장애요인($r=-.119, p<.01$), 현실구분 장애요인($r=-.170, p<.001$), 긍정적 기대요인($r=-.093, p<.05$), 금단요인($r=-.163, p<.001$), 일탈행동요인($r=-.125,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나 가상적 대

인관계 지향성요인과 내성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와 모의 애정요인은 모두 인터넷중독의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과 내성요인을 제외한 기타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와 모의 애정요인은 모두 현실구분장애요인과 가장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과보호요인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r=.089, p<.05$), 내성요인($r=.08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기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과보호요인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r=.09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기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와 모의 과보호요인은 인터넷중독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하위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의 과보호요인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 내성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모의 과보호요인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장애요인($r=-.337, p<.001$), 현실구분 장애요인($r=-.205, p<.001$), 긍정적 기대요인($r=-.174, p<.001$), 금단요인($r=-.313, p<.001$),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r=-.224, p<.001$), 일탈행동요인($r=-.305, p<.001$), 내성요인($r=-.247, p<.001$)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과 부,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부의 거부요인($r=-.263, p<.001$), 모의 거부요인($r=-.252,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의 애정요인($r=.314, p<.001$), 모의 애정요인($r=.298,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은 부의 과보호요인, 모의 과보호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인터넷중독 하위요인과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자기통제력간 상관관계(r)

	일상 생활	현실 구분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일탈 행동	내성	부거부	부애정	부과 보호	모거부	모애정	모과보호	인터넷중독
일상생활	1													
현실구분	.359***	1												
긍정적기대	.287***	.250***	1											
금단	.448***	.435***	.563***	1										
가상적	.290***	.283***	.468***	.507***	1									
일탈행동	.418***	.473***	.333***	.579***	.446***	1								
내성	.478**	.263***	.457***	.528***	.352***	.487***	1							
부거부	.214***	.243***	.157***	.245***	.194***	.181***	.149***	1						.268***
부애정	-.169***	-.182***	-.142***	-.178***	-.067	-.166***	-.058	-.122**	1					-.188***
부과보호	.025	.004	.048	.007	.089*	.008	.084*	.435***	.428***	1				.057
모거부	.194***	.116**	.148***	.182***	.200***	.131**	.110**	.593***	-.254***	.164***	1			.223***
모애정	-.119**	-.170***	-.093*	-.163***	-.043	-.125**	-.064	-.288***	.609***	.097*	-.013	1		-.147***
모과보호	.035	-.045	.073	-.009	.095*	.002	.070	.111**	.121**	.486***	.493***	.466***	1	.058
자기통제력	-.337***	-.205***	-.174***	-.313***	-.224***	-.305***	-.247***	-.263***	.314**	-.011	-.252***	.298***	.030	-.365***

*p<.05, **p<.01, ***p<.001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 전체와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E			
인터넷중독	부양육태도	-.145	.051	-.116	-2.872	.004
	모양육태도	-.087	.046	-.076	-1.897	.058
	자기통제력	-.656	.079	-.316	-8.288	.000
		R=.396	R ² =.157	F=39.405***		

***p<.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 변량을 약 15.7%를 설명하고 있고 회귀모형(F=39.40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 양육태도($\beta=-.116$, p<.01)와 자기통제력($\beta=-.316$, p<.001)은 인터넷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진다고 할수 있다. 반대로 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 표 IV-12와 같다.

표 IV-11 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E			
인터넷중독	거부	.910	.176	.234	5.169	.000
	애정	-.443	.116	-.172	-3.810	.000
	과보호	.098	.168	.029	.580	.562
		R=.311	R ² =.097	F=22.651***		

***p<.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은 인터넷중독 변량을 약 9.7%를 설명하였으며, 거부요인($\beta=.234$ $p<.001$)과 애정요인($\beta=-.172$ $p<.001$)은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부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은 높아지고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IV-12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E			
인터넷중독	거부	.792	.178	.206	4.459	.000
	애정	-.400	.115	-.158	-3.471	.001
	과보호	.093	.163	.030	.570	.569
		R=.311	R ² =.097	F=22.651***		

***p<.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은 인터넷중독 변량을 약 7.1%를 설명하였으며, 거부요인($\beta=.206$, $p<.001$)과 애정요인($\beta=-.158$ $p<.001$)은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은 높아지고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는 전체 응답자의 94.4%가 집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설치장소는 본인의 방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알아본 문은숙(2006), 최혜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이 결과는 인터넷을 주로 접속하는 장소가 집인 것만큼 가정에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영역 세 가지를 물어보고 그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처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영화, 음악, 동영상 등 즐기기(23.6%)를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으로 게임, 학습정보검색, 채팅, 다운로드 등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평일보다 주말에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학습에 이용하기 보다는 오락을 즐기고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유정민(2012), 최혜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라는 즐거운 놀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활동프로그램들이 구안되고 활성화되어 주말여가생활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중독 관별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86.7%)이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3.3%가 인터넷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서 발표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 11.7%, 중국 대련(大連)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張蓮(2013)의 연구와 한국과 중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민(2015)의 연구에서 인터넷중독률이 각각 14.26%, 15.6%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는 인터넷중독 현상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인터넷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중독 경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김기리, 2007; 김나리, 2014; 민민, 2015; 정수연, 2014)의 연구와 일치하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3), 중국청소년인터넷협회(2011)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의 해석과도 일치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에 성별차이를 감안한 청소년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인터넷중독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인터넷중독수준이 낮았고, 거부적일수록 인터넷중독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고은옥, 2006; 김정애, 2006; 문은숙, 2006; 박화자, 2001; 우영숙, 2008; 전필선, 2009; 정숙영, 2009; 정은경, 2008)와 일치하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경향이 높다는 연구(김나리, 2014; 김남숙, 2002; 이지원, 2011; 최혜진,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경로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준다. 이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필수화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을 강제로 막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시하며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 변량을 15.7%를 설명하고 있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인터넷중독이 높아지고(문은숙, 2006; 우영숙, 2008; 이영록, 2013; 이지원, 2011; 정은경,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인터넷중독이 낮아진다(김선희, 2013; 이상배, 2014; 정숙영, 2009; 정은경, 2008; 천은주, 2014)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은 낮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성향은 높다는 연구결과(정병일, 박희서, 2014; 정수연, 2014; 한정선, 김세영, 2005; 何燦 외, 2012; 聶衍剛 외, 2013; Robert, Carolyn & Matthew, 2003)와도 일치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을 함양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세영(2012)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성일 등, 2000),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이 높아진다는(김선희, 2013; 김현주, 2011; 정은경, 2008; 王芳, 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 학생은 대부분 외동자식이고 부모들이 막벌이 부부가 많고 또한부모가정 결손가정이 많아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가 조선족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상담이나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중독 경향이 더 높다. 또 성적에 따라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많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통제력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 즉 부모의 거부가 낮을수록, 애정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아진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 즉 부모의 거부가 높을수록, 애정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중독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은 낮아진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모두 인터넷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연변주에 소재한 6개 중학교의 2~3학년 중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를 중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표집범위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중독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 중학생들은 결손가정이 많고 부모들이 장기적으로 곁에 없는 실정하기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학생들의 실정에 알맞는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외에 행동관찰이나 임상 면접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이제 인터넷중독은 청소년의 문제만으로 국한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과 테블릿 PC등의 발전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에까지 후속 연구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중독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음을 고려 할 때 교사와 부모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여 인터넷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 사용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석수(2007). **중학교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 태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옥(2006).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인터넷 중독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정(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창민(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광도(2006). **자녀양육이 자기통제력 및 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6호.
- 김교현(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 김경희(201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리(2007).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숙(2009).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 예측 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리(2014). **중학생의 외로움과 스트레스,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200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단(2012). **부모들이 출국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 조선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명숙(2013).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년, 최홍일(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9집 1호.
- 김선희(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란(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과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2005). **중학생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욕구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09).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그 영향 요인**.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10호.
- 김영경(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 68호.
- 김재경(2011).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2006).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 조옥귀(2002). 중,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권 2호.

- 김현주(2011). **부모양육태도, ADHD 경향성 및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유상진, 구본희(2007). 개인 특성 및 인터넷 활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8권.
- 남명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장애**」 3판. 서울: 학지사.
- 남영옥, 이상준(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이 공포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보상효과와 완화효과. **청소년학연구** 13권 2호.
- 노선미(2011). **지각된 부부관계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황택(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2004).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증상척도(MSPIUA-S)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 문은숙(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 민(201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과 중국의 중학생 대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전경자(2007).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14권 2호.
- 박은정(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자(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서(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생태 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15권 8호.
- 배정숙(2014).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은(2009).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 넷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권 2호.
- 손미경(2007). **혼합형 자기교시 훈련 프로그램이 주의집중력이 낮은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순(2007).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사회적지지 및 자기통제력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춘옥(2011).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관희(2004).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옥녀(2008).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임, 김동규(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엄옥연(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우울과 자기통제력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현진, 한애경, 윤혜미(2011). **남자범죄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학대피해경험과 사이코패스 성향의 관련성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권.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증세의 관계**. **한국행동과학**. RB-11-1.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오원옥(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 요군아(2012). **중국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사회적응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선호간의 차이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숙(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민(2012).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감독과 초등학생 인터넷중독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배(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인터넷 게임중독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경, 김영혜(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권 5호.
- 이영록(2013).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주관적 안녕감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子女教育觀 및 養育態度와 幼兒發達과의 關聯性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미(2014).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추진(2007). 초등학교 저학년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유형에 따른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에서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12).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변인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백진아(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0호.
- 임훈정(2015). 부모양육태도및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외감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 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 전필선(2009).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일, 박서희(201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19권 3호.
- 정수연(2014). **남·여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가족건강성이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영(2009). **초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태근(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 정현웅, 오세덕(2008). 아동, 청소년 상담: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 조민자(2011) **우울,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동기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 차덕환(2009). **환경특성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은주(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2010).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성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최연실, 안연주(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4호.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2014년 청소년통계**.
- 표경자(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학교생활학교생활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창순(2004).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아(2003). **초중학생의 컴퓨터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한상현(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인터넷 중독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선, 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2권 2호.
- 홍진선(2009).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승일(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陶 沙(1994). 3-6歲兒童母親的教育方式及其影響因素的研究[J], **心理發展与教育** 1994 (3)
- 劉金花(1991). 上海市中學生父母的教養態度及与台湾父母教養態度的比較. **心理科學** 1991 (01).
- 李英存(2012). **濟南某中學初一學生網絡成癮現狀及心理干預對照研究**. 山東大學醫學院 碩士學位論文.
- 林 磊(1995). 幼兒家長教育方式的類型及其行爲特点[J]. **心理發展与教育** 1995, (4).

- 梅松麗, 郭金花, 柴晶鑫, 李敬陽(2014). 長春市青少年網絡成癮影響因素調查. **醫學與社會** 27(7).
- 白新營(2014). 初中生網絡成癮與父母教養方式的關係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聶衍剛, 竇凱, 王玉洁 (2013). 沖動性與網絡成癮: 自我控制的中介作用. **寧波大學學報** (教育科學版) 35 (3).
- 吳文麗, 伍翔, 袁方, 鄭燕行, 鄭希付(2009). 青少年壓力, 應對方式與“網絡成癮”的關係. **中國臨床心理學雜誌** 17(6) 721-723.
- 王芳(2008). 上海市中學生網絡成癮及影響因素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志梅(2003). 初中生父母教養方式的調查研究. **河北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2003 (6).
- 王海花(2013). 農村留守中學生網絡成癮及其與父母教養方式、同伴關係的相關研究. 華中師範大學心理學院 碩士學位論文.
- 張蓮 (2013). 大連地區初中生網絡成癮和焦慮, 抑郁情緒的現狀調查. 大連醫科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宛筑, 鄧冰, 黃列玉, 王加好, 田艷, 王鳳, 謝舍村(2013). 中學生網絡成癮傾向情況及影響因素分析. **中國公共衛生** 29(7).
- 趙汗青(2006). 家庭教養方式研究的發展進程[J]. **商丘師範學院學報** 2006 12 22(6)
- 周麗華(2009). 青少年網絡成癮與應對方式及生活事件關係. **中國公共衛生** (11) 1372-1373.
- 中國未成年人網綜合(2014). 青少年沉迷網絡問題日益嚴峻 防治需社會各方共同努力. **中國未成年人網**. 2014.08.18.
http://www.kids21.cn/bwzh/201408/t20140818_285664.htm
- 中國青少年網絡協會(2011). 2011年中國網絡青少年網癮調查數據報告.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4). 2013年中國青少年上網行為調查報告.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4). 第三十四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陳淑惠, 翁麗禎, 蘇逸人.(2008) 中文網絡成癮量表之編制心理計量特性研究 (J) **中國特殊教育** 2008(5).
- 陳陳(2002). 家庭教養方式研究進程透視.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2(6).
- 沈莉(2008). 家長對青少年網絡成癮影響的相關因素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何燦, 夏勉, 江光榮 & 魏華. (2012). 自尊與網絡遊戲成癮-自我控制的中介作用.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0(1) 58-60.
- Block, J. J.(2007). Issues for DSM-V: Internet addiction. *The American*

- Journal of Psychiatry 165 306 - 307.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 Olson, S. L., Bates, J. E., and Bayles, K.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4.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 1.No 1. 25-28.
- Young, K. S. Caught in the net, 김현수 역 인터넷중독증(서울: 나눔의 집)2000.
- Young, K. S.(2009). Internet Addiction: Dagnosis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J Contemp Psychother 39: 241-246.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trol Recognized by the Youth Regarding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Based on the Korean-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in Yanbian, China-

Yum Young Ah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Park Jung Hwa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that the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trol, which had been recognized by the youth, have in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So,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have been set up.

- Issue 1. What difference do the factors such as the actual usage of the Internet, gender, age and grade make in the Internet addiction?
- Issue 2. What relation has been formed between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self-control and the Internet addiction?
- Issue 3. What influence do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and self-control have in the Internet addiction?

In order to verify these three issues, a survey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730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ir 2nd and 3rd grade from 6 schools located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640 out of 730 questionnaires, excluding those with many omitted answers or insincere answ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PSS/WIN 18.0 was used to process and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every positive analysis was verified within the range of significance level. Also,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ollowings s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ith regard to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target students, Most students were normally using the Internet, whereas 13.3 percent of them were exposed to the risk of the Internet addiction.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based on their gender and grad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ased on the age of the

students.

Second,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self-control and the Internet addiction have all meaningful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While the refusal, which belongs to the parental attitude, had a static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addiction, the lov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addiction. That is, the probability of the Internet addiction becomes stronger as the degree of the refusal becomes higher, plus,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becomes lower as the love becomes stronger.

The self-control and the Internet addiction had a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So,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becomes lower as the strength of the self-control becomes higher.

Also,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and the self-control had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each other. The refusal of the parental attitude had a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love had a positive correlation. It means that the self-control becomes lower as the degree of the parents' refusal becomes higher, again, it becomes higher as the love of the parents' becomes stronger.

Third,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and self-control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in the Internet addiction. It means that the parental attitude recognized by the youth and self-control is a significant factor which influences the Internet addiction.

Th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ents should be appropriately educated in enhancing their self-control in order to prevent their children from being addicted to the Internet. Also, it would be a valuable, fundamental data which could be used to establish a good environment for the Internet users, especially the youth.

<부록>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여러분의 자기통제력, 인터넷사
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던대로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
다. 여러분의 응답은 모두 소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
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1.한 문제에 한 군데에만 <보기>와 같이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보기>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게임은 재미있다.			○	

2.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염영아(lingya5300@naver.com)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8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꾸다.	①	②	③	④
12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14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진진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6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17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①	②	③	④
1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20	만약 인터넷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21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22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23	인터넷 사용 때문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 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25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26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7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28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9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30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2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①	②	③	④
33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34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5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6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3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3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3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4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①	②	③	④

부모양육태도검사

※ 아래 각 문장을 읽어 보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버지·어머니의 경우를 나누어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학생은 지금 키워주시는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번호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부모님은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3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부모님이 걱정을 조금 덜 하시면 좋겠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내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나를 꾸중하시고 매를 때리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5	집에 오면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게 좋은 책을 사주거나 캠프나 클럽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등 내 사춘기시절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꾸중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도 나는 못하게 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내가 최고가 되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주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0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은 슬픈 표정을 짓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여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걱정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2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부모님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3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로 대우 받거나 희생양 취급을 받았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좋아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내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나를 대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은 지나친 걱정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 건건 간섭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19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정을 느꼈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고 벌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혹은 외모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아버지 맘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23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면 부모님은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부	①	②	③	④
		모	①	②	③	④

자기통제력 검사

<p>※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비슷한 곳에 표시 하세요.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군데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V 표시)</p>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믿을 만큼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성도가 들쭉날쭉함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3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이나 선생님(상사)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해야 할 일을 곧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라도 둘러대곤 한다.	①	②	③	④
7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빼먹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13	길이나 주변을 잘 살핀다.	①	②	③	④
14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을 늘어놓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한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17	한 번에 한가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손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9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20	친구들은 규칙을 잘 지키거나 협동하는 면에서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1	한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기타>

<p>※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과 여러분의 가족사항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p>	
<p>1.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학기말 학급 등수를 기준)</p>	<p>① 상(1-8등) ② 중상(9-18등) ③(19-24등) ④ 중하(25-32등) ⑤ 하(33등 이하)</p>
<p>2. 여러분 가정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p>	<p>① 상(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② 상중(잘 사는 편이다.) ③ 중(보통이다.) ④ 중하(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⑤ 하 (매우 형편이 어려운편이다.)</p>
<p>3.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안에 번호를 적으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아버지 () / 어머니 ()</p> <p>① 초등학교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년제 대학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이상 ⑦ 모름</p>
<p>4. 부모님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p>	<p>① 두 분 모두 이용하심 ② 아버지만 이용하심 ③ 어머니만 이용하심 ④ 모두 이용 안 하심</p>

5.인터넷 접속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집 ② 학교 ③ PC방 ④학원 ⑤기타 ()
6.집에 컴퓨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부모님 방 ② 본인 방 ③ 형제, 자매방 ④ 거실 ⑤ 기타 장소 ⑥ 없음
7.친한 친구가 만일 인터넷중독에 빠지면 어디에서(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2가지 고르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부모님 ② 학교선생님 ③ 친구들 ④ 학교상담선생님 ⑤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센터 ⑥ 기타()
8.다음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영역을 골라 ()안에 번호를 쓰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개인홈피 (미니홈피,블로그 등) ② 이메일/카드 ③ 정보검색 ④ 게임 ⑤ 온라인쇼핑 ⑥ 동호회나 커뮤니티 ⑦ 채팅 ⑧ 메신저 ⑨(MP3,영화사진)다운로드 ⑩ 아바타 치장 ⑪(영화,음악,동영상)즐기기 ⑫ 성인 혹은 도박 사이트 ⑬기타
9. 하루에 평균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안에 쓰시오.	평일() 주말()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 ~2시간 ④ 2~ 3시간 ⑤3~4시간 ⑥ 4시간 이상
10. 여러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통제한다 ② 통제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권장하는 편이다 ⑤ 매우 권장한다

☺ 수고했습니다.

